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연구 목적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각종 정보처리 수단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물론 생활양식 및 사회적 가치체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변화양상을 띄게 되었다(이명수 외, 2001).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매체의 활용과정에서 역기능적인 측면에 따른 부작용을 내포한다. 그리고 통신매체의 잠재적 위험성은 기존질서와 다른 새로운 문화창출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능력의 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정보화사회에 가장 많이 관여하면서도 아직 정체성확립이 완성되지 않은 정보매체의 역기능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주요한 위험집단이다.

정보통신매체 가운데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21세기 현대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동전화 보급대수는 1998년 이미 1,000만대를 넘어섰고, 전체 인구 가운데 10대 연령층의 사용율은 1%에서 1.5% 성장하여 2.5%(87,334명)를 기록했다(유한대학교, 1998).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료(2001)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무선통신기기 보급률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2001년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43.4%로 1999년 보유율 12.1%보다 약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1)의 청소년 휴대폰 활용실태의 조사에서는 청소년 가운데 67.1%의 학생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은 장소의 고정통신 개념이 아니고 차세대 보편적 신 서비스라는 강점 이외에 자신만의 고유 통신번호를 소유하여 원하는 사람과 어디서든지 마음껏 의사소통하는 행위으로써, 이동성·휴대가능성·비공유성의 특징을 가진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그런데 휴대폰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이동통신매체가 지니는 보편적 특성이외에 청소년 그들만의 의미들을 내포한다. 청소년들은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하고 개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한 세대로서 나만의 것, 나만의 공간, 나만의 방식, 나만의 취향을 추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욕구를 표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나아가 휴대폰 사용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일종의 또래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청소년 고유의 집단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휴대폰의 영향에 관하여 아직 학문적인 관심은 미흡하며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에 관한 다각적인 조명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통신매체의 기술적 속도에 비해 문화적 준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휴대폰문화 정착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동안 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에 관한 사회심리적 연구들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이칭찬, 2001; 성주은, 1999; 양소남 1996; 이명수 2001; Young, 1994, 1996, 1997; Griffiths, 1996; Rodgers, 1994)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심리문화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척되지 않았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미 만연하여있는 휴대폰의 영향을 재검토하고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2. 연구내용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휴대폰활용에 관한 현상파악과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적 이해, 그리고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목적으로,

첫째, 급속히 확산된 휴대폰의 정보기기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실태를 살핀다.

둘째, 새로이 시도된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정립을 통하여 중독으로 진단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으로 분류하고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들을 가시화함으로써 건전한 통신문화 형성을 위한 경각심을 일으킨다.

셋째, 휴대폰 중독 위험에의 영향요인들을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심리적 특성 및 사회환경요인들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중독에 대한 예방과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휴대폰중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므로 중독 관련 및 사이버중독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구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 396명에게 설문조사하여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 실태와 중독관련 변인들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 후 휴대폰 중독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여 그 정도에

따라 대상 청소년을 휴대폰 중독, 의존, 비중독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휴대폰중독과 연관되는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의 중독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휴대폰 중독의 개념 구성
2. 휴대폰 중독의 영향요인

II. 이론적 배경

1. 휴대폰 중독의 개념 구성

휴대폰 중독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기존 연구들에서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독의 개념을 유의깊게 검토한 후 휴대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신매체의 중독 중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살핍으로서 휴대폰 중독의 개념형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Goldberg, 1995; Young, 1996, 1997; 양소남, 1996; 이창찬, 2001).

1) 중독의 개념과 현상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중독(addiction)이란 술이나 마약, 담배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나 생리적 의존을 뜻하는 것(이병윤, 1992)으로 이런 알콜, 카페인, 마약류와 같이 인간의 몸 안에서 흡수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남용, 구갈 등의 행동변화, 금단, 내성 등의 증상이 있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약 이십 년 전부터 중독의학을 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런 중독증상이 약물이나 화학물질이 아니라 과도한 특정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조절의 문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되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이송선, 2000).

현재 휴대폰 중독은 DSM-IV의 정신장애진단(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s)기준에 의거할 때 분류되지 않은 충동조절장애에 속하여 적용될 수 있다¹⁾. 충동통제 장애의 가장 두

1)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는 충동조절장애로서 병적 도박, 방화광, 도벽 광등이 있으며 쇼핑, 운동, 나아가 최근의 인터넷 중독 등의 의존적인 행동 장애가 충동조절장애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다.

드러진 특징은 어떤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충동이나 유혹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그러한 충동이나 유혹이 생기면 긴장되거나 흥분이 고조된다. 그러다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면 긴장감이나 흥분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즐거운 기분이나 만족감 또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Frosch와 Wortis에 따르면 충동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추동(drive)의 갑작스럽고 즉각적인 폭발로 대개 순간적이고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병적인 충동은 본래의 충동이 약간 왜곡된 것으로 극단적인 긴장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충동은 강박적 증상과 구별된다. 강박장애에서 강박적 충동은 그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는 충동임에 비해, 충동장애의 특징은 자아동조적이다. 따라서 충동이 마음의 순간적인 목표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충동을 표현하는 순간에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된다(도상금·박현주, 2000).

DSM-IV에서는 충동통제 장애의 주요 특징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나 추동 또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충동통제 장애자들은 그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다가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즐거움과 만족감 또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나 자기비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통신중독의 하나로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현상을 보인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증 또는 병적인 도박 증세의 징후와 일치하는 임상적 양태를 보인다. 인터넷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의존증, 인터넷상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며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내성, 인터넷을 떠

나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금단 증상이 중독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다(도상금·박현주, 2000). 예를 들어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웹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인터넷에 관한 백일몽에 빠지기도 하고, 왠지 초조하고 불안해지며,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이메일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한다. 이들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금단 증상들이 사라지는 안도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도상금·박현주, 2000).

2) 통신중독증의 기준

통신 중독증 혹은 인터넷 중독의 기준에 대한 논의들은 위의 정신의학적 중독의 개념을 적용하여 학자들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Young(1996)은 DSM-IV의 약물의존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전개하였다. 즉 의존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알콜중독이나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 명백히 방해받고 있음을 보고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의한 약물의존시의 현상적 결과를 중독의 기준으로 삼았다.

Ivan Goldberg(1995)는 통신중독증의 진단기준을 DSM의 형식에 준하여 개발·제시하고 있다. 통신중독증의 진단기준은 동일한 12개월 기간 동안에 다음의 항목 중 적어도 세 가지를 만족시켜서 PC통신 사용에서의 비순응적인 행동유형을 보여 주어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이다.

첫째, 내성은 더 많은 시간을 통신에서 소모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통신상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그 효율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둘째, 금단은 특징적인 금단증상과 계획했던 것 보다 통신사용 빈도 및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통신사용을 중지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 혹은 성공하지 못하는 노력, 상당량의 시간을 통신 관련 행동에 소모함(예를 들면 인터넷 서적구입, 통신 관련 상품판매의 검색, 다운받은 파일들의 정리), 중요한 사회, 직업, 혹은 여가 활동이 통신사용을 위해 포기되거나 감소되고, 통신사용에 의해 유발 혹은 악화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혹은 심리적 문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어도 지속되는 통신사용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위의 중독기준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보기술과 관련된 중독의 행동특성을 관찰한 여러 연구자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중독의 핵심적 요소들로 정의하고 있다(Griffiths, 1999).

(1) 집착: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 사람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다음 번에 그 일을 할 때 어찌할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2) 기분의 변화: 그 행동을 할 때에 기분의 변화를 느낀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생활이나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3) 내성: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많은 양의 활동을 해야만 한다.

(4) 금단: 만일 그 행동을 하지 않거나 갑자기 행동량을 줄어 들게 되면 불쾌감이나 불안감, 짜증,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긴다.

(5) 갈등: 특정행동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주위의 인간

관계, 사회관계가 나빠지고 문제가 생긴다.

(6) 재발: 끊거나 조절을 한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언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은 형태로 혹은 다른 형태로 재발이 가능하다.

한편 Goldberg(1996)는 앞서 정의한 인터넷 중독의 진단준거를 개정하여 병적 컴퓨터 사용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준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병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어떤 장애를 일으킬 때, 둘째, 병적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결혼생활,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 손해나 지장이나 생길 경우이다.

이상 중독 증상들의 발현을 근거로 학자들은 조작적 정의들을 시도하고 있으나 중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합의된 진단 기준, 원인에 대한 학문적 정립 등에 있어서는 학술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중독사례가 보고된 바는 있으나 하나의 장애로 규정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송명준 외, 2000) 중독의 증상과 비율이 지나치게 과장된 점이 있다. 이러한 불일치적 개념적 논의를 하나의 인터넷중독 혹은 사이버중독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접근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Suler(1996)의 경우 인터넷 중독을 세가지로 구분하되 매스컴에 의해서 과장된 인터넷 중독, 일시적 인터넷중독, 진실한 인터넷중독으로 분류하고 인터넷중독이 타당한 진단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뒷받침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의 개념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은 정보화사회의 흐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중독개념에서의 특성으로서 나타나는 개인의 충동통제에서의 장애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Goldberg(1996)의 병적 컴퓨터의 사용장애의 진단기준에서 논의한 휴대폰의 병리적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사회기능적 측면의 지장을 강조한다. 이는 휴대폰의 과다한 사용의 결과를 생리적 내성의 발달과 금단증상등 신체적인 의존성보다 역할기능의 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기능적 의미를 강조할 때 중독이라는 용어보다 의존이라는 개념이 적합할 수도 있으나 병리적 사용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이라는 측면²⁾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후에 그 정도에 따라 중독의 경향성을 의존,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셋째, 중독의 개념은 정보화라는 사회적 상황변화를 수용하는 맥락적 이해를 전제한다. 이는 휴대폰의 정보매체사용의 기능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각 사회마다 때에 따라 집단에 의해 병리적 사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논의는 우리나라 정보화사회의 청소년 집단이라는 맥락적 상황이 반영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휴대폰 중독의 개념은 Suler(1996)가 강조했던 보다 타당성 있는 진단적 가치를 성립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실증적 토대위에 검증될 것이다.

-
- 2) 사이버 의존은 사이버 중독과 유사하지만, 통제력의 유무로 구분되는 뚜렷한 임상적 차이가 있다. 중독이란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요구, 그것과 연결하여 그 활동을 반복함으로써 만족을 얻고 그러한 욕구를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며, 의존성이란 한 사람이 그 행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자의나 타의에 의해 금지됨으로써 고통스럽게 되는 상황에 조건화되는 것을 일컫는다 (Puder-York, 1996; 임효정, 2000, 재인용)

2. 휴대폰 중독의 영향요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 즉 삶의 전체적 맥락에서의 역기능성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통신매체들에 빠져드는지에 대한 원인적 설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휴대폰의 병리적 사용을 이끄는 원인에 대하여 정보매체로서 휴대폰 자체가 갖는 사용동기적 기술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특성들의 두가지를 고려하여 아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휴대폰의 정보기능별 사용동기

휴대폰의 사용은 정보화 기능에 따른 동기 유발의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보화의 기능으로서 크게 세 가지 즉 정보제공 기능, 의사소통 기능, 오락 기능이 대표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Young, 1998).

첫째, 정보제공 기능과 관련하여 현대인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동시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를 통해 어떠한 정보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정보제공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결정될 수 있다.

둘째, 정보화의 또 다른 주요기능은 의사소통 기능이다. 정보화는 사용자간에 상호적인 의사교환을 원활하게 해 준다. 즉 현대인은 공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세계곳곳의 특정한 타인과 신속하게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의 의사소통 기능은 정보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보제공기능과는 구별된다. 정보화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세계와 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을 제공한다. 정보화에서의 공간은 자신의 실제모습을

은폐한 채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익명성을 제공하고 무수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접근용이성을 제공한다.

셋째, 오락 기능으로서 정보화상에는 재미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과 활동(도박, 쇼핑, 증권거래, 성욕구 충족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이러한 오락이나 게임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게 되는 일종의 중독현상이 나타나 현실적 적응에 현저한 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 오락이나 게임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타인과 경쟁을 하는 교류적 요소가 있으나 사적인 정보와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소통기능과 관련된 문제행동과는 구별된다. 최근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의 사용이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오락기능이 사용동기로서 작용된다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기확인적 동기를 기능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시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자아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보매체 통하여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시험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보여지고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정체성을 탐색하고 익명이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현실과 다른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기회를 통해 사이버 세계는 자아의 탐색을 위한 매우 안전하고 가능성 넘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다(황상민, 2000; 김옥순, 홍혜영, 1998; 김옥순, 2000).

이러한 통신매체 사용의 동기부여의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이유들을 조사를 통해 규명해 보았다.

2)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을 통신매체의 활용에서 일상생활에서의 현실기능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규정되고 인간의 자아가 이러한 현실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은 자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적 특성이 주요한 중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사이버 중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자주 논의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아존중감, 충동성, 우울등의 심리적 특성들을 통신중독의 설명요인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 이외에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중요시하여 학교생활 환경,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변인들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특성들은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이라는 역기능적 행동에 관련하여 위험적 요소로 혹은 보호적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Coopersmith, 198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하며 자신을 가치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능동적, 창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Coopersmith, 198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특징에 대해 상당히 일관성있는 이미지를 가지며 (Janis, 1954)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있는 대우와 존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Mead, 1934; 장도현, 1984 재인용).

종합해볼 때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의 다

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이계원, 2001). 첫째,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 수용, 관심있는 대우의 정도, 둘째, 성공한 경험과 직위 또는 지위, 셋째,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영역에 포부를 가지고 생활하는 태도, 넷째, 낮은 평가에 반응하는 개인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집단내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견해를 자주,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두려움과 반대감정의 양립에 대해 걱정을 적게 하며, 자기에 대한 의심이 적고 개인의 목표성취를 향해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현실에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의 개념으로 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휴대폰의 정보매체에 덜 몰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 우울

최근 급증한 통신매체 사용에 관하여 Young, Rogers(1977)와 Gunn(1988)는 인터넷중독과 우울과의 관계연구에서 BDI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벼운 정도에서 심각한 정도까지의 우울을 보임을 확인했고, 이런 우울이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과 함께 나타날 때, 작은 목소리, 눈맞춤, 제스처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감출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관계에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논의에 덧붙였다(송원영, 1999). 성주는(1999)의 연구에서는 PC통신에 중독된 사람의 경우 중독되지 않은 사람보다 간이 정신검사(SCL-90)하위 척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남자의 경우 우울증, 신체화, 강박 여성의 경우 강박,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에 있어서 중독되지 않은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희의 연구(1988)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인간관계 중 사회적 불편감의 부분에서 인터넷에 몰입한 집단은 비 몰입 집단이나 비 사용자 집단보다 우울과 충동성 증상이 높았으나 감각추구 성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동성

충동성은 ICD(1992)과 DSM-IV(1994)에 알콜리즘 진단준거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통제력의 상실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이명숙, 1998). 충동성이란,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양자를 포함하는 성격특질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 혹은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격특질을 말한다(Eysenck & Eysenck, 1984; Gray, 1987).

정보화의 역기능적 사용은 앞서 중독의 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충동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Shapira 등(2000)의 연구자들은 인터넷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병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충동조절장애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에 참가한 성인 남녀들의 행동이 강박적이거나 자아 이질적(ego dystonic)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자아 동조적(ego syntonic)이라고 보았다.

Wellman은 정보화 중독이 과각성 상태를 추구하는 장애라고 보았는데(Young, 2000), 충동적인 사람은 각성역(threshold)이 높기 때문에 최적의 각성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성을 증가시키는 자극이나 사회적 상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Wellman의 주장 역시 인터넷 중독자들이 가진 충동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소영과 권정혜(2001)의 연구에서 정보화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충동적이라고 나타났다.

한편 충동성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비행, 품행장애(conduct

disorder)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충동적인 사람은 조급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거나 모험상황을 선호하고 무계획적 문제 해결 양상을 보인다(Barratt, Patton, Olsson & Zuker, 1981). 따라서 청소년의 충동성은 자기통제의 실패로서 생활기능영역에서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매체의 사용에서도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가상현실에서의 자기탐색은 현실과 연관, 통합되어져야 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통신중독으로 빠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이계원, 2001).

(4) 학교생활

학교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학교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해 간다. 청소년의 생활기능의 수행은 학교에서의 적응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의 교육내용에 의한 평가는 지식의 수준을 평가할 뿐 개인의 능력에 대한 선별로서 소외의 형태로까지 나타난다. 그 결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행동에 의해서라도 인정받고자 위험행동으로의 개입 동기가 될 수 있음이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Steinhausen & Winkler, 2001; Voydanoff & Donnelly, 1999). 예를 들어 대학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갖는 것이 위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한상철, 2001).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은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을 예언해 준다(Furstenberg & Hughes, 1995). 나아가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교사와

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학교의 학업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며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의 학업, 교사, 친구와의 관계,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등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위험행동의 한 결과로서 휴대폰 사용의 역기능의 발현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이계원, 2001). 개인이 의미있는 타인들과 강한 유대를 맺게되면 그들의 기대에 민감해져서 자기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되므로 비행의 측면에서도 주요 억제요인이 된다. 실증적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수준은 매우 높아지며(박성연과 도현심, 1999) 그러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집착하고 의존하며, 친구들의 유혹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이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여러 연구(김두섭과 민수홍, 1996; 오미경, 1997)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학업성취,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통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Belle & Longfellow, 1984; Parke, 1981) 사회적 지지체계는 사회화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을 한다(김지혜, 1997). 개인이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은 개인과 상호작용을 맺는 주요한 체계로서 개인을 사회화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아동과 청소년기에 걸쳐 경험한 사회지지관계의 구조와 질, 지지의 제공경험은 이후의 사회지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Nestman &

Hurrelmann, 1994).

사회적 지지는 보호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Cauve et al., 1994).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억제되며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도록 동기화되기도 한다(Rosenthal, 1995). 또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을 적게 보이며 사회적 지지는 때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청소년이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 우울에 걸릴 확률을 낮추어 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수민, 1988; 심미경, 1986; Buhrmester & Furman, 1987)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인은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며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보고하고 있다. 조남근과 양동규(2000)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부모, 교사의 지지보다는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지가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회적 지지를 가상공간에서 얻음으로써 중독현상이 야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Young, 1997).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고 현실에서와 다른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상, 가상공간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회적 지지를 가상공간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2. 조사내용과 측정
3. 자료분석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본 조사의 대상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남녀고등학생으로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 일반계와 실업계 각각 2개씩의 고등학교를 선발하였으며 1, 2, 3학년을 포함하되 학급을 임의 선정한 후 청소년 410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에 조사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학교교장선생님의 동의를 얻은 후 각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내용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 후 직접 자료를 배포, 수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410부중 분석에 용이한 368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과 측정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 학교종류, 학교성적수준, 가정의 생활수준 등이 포함된다. 학교종류는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하였으며 학교성적수준은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하는 편의 4등급으로 나누었고 생활수준도 상, 중상, 중하, 하의 4수준으로 구성하였다.

2) 휴대폰의 이용실태와 사용동기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휴대폰의 사용기간, 주요 이용목적, 이용요금, 1일 이용시간, 주요 용도, 이용시간대, 요금지불자, 지도상담등을 파악한다. 휴대폰의 사용동기는 정보제공적 측면에서 획득의 용이성과 호기심 만족을 포함하고 자기 확인적 측면에서 나만의 생각표출, 새로운 내가 됨, 대인적 측면에서 소속감, 외로움 극복, 그리고 오락적 측면에서 스트레스 해소, 시간보내기, 익명성보장 등의 항목들로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휴대폰 사용동기에 대한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84이다.

3) 휴대폰 중독 및 사용집단의 중독경향 구성

통신매체의 중독 중 연구가 진척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측정내용을 기초로 휴대폰 중독기준을 구성하였다. Kimberly S. Young의 인터넷 중독 판별도구를 변안하고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문항들을 재구성하였다. Young의 온라인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는 인터넷 중독 검사지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터넷이나 통신 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부진, 가정에서의 소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서적 변화 등의 내용을 대표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점수를 책정해서 50점이 넘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의 사용으로 변환하여 질문하고 (예를 들어 문자서비스, 휴대폰의 울림소리에 대한 환청등) 조사대상자인 학생에게 중요시된다고 여겨지는 휴대

폰의 과도한 사용료,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였으며 동의의 정도에 따라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중독에 대한 판정을 Young의 문항의 합산된 점수에 의한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따르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의 결과 가중치를 부여하여 휴대폰중독의 요인점수(factor score)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또한 휴대폰 사용집단에 대한 분류는 휴대폰 사용에 관한 중독 요인점수(factor score) 분포의 사분위를 기준하여 25%이하를 비중독, 25-75%를 몰입, 75%이상을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과정은 분석결과에서 다룰 것이다.

본 연구 자료에서 나온 요인분석 결과 휴대폰 척도의 신뢰 계수 Cronbach's α 는 .94이다.

4) 사회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하여 자존감, 충동성, 우울, 학교생활,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존의 신뢰성이 검증된 척도들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위해 Rosenberg(1995)의 Self 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고 자기존중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이 포함된다. (1)'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척도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5개 문항(척도중 3, 5, 8, 9, 10번)은 역으로 합산한다.

이영자(199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고 김종범(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자아존중감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79였다.

(2) 충동성

충동성 척도는 Barrett Impulsiveness Scale을 한국의 이현수(1992)가 번안한 BIS 11판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 충동성 6문항, 운동 충동성 8문항, 무계획 충동성 9문항의 세가지 하위 척도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현수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인지충동성이 $\alpha = .73$, 운동충동성은 $\alpha = .70$, 무계획충동성은 $\alpha = .50$ 이다. 본 연구에서의 충동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0.78이다.

(3) 우울

한국어판 역학연구 우울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현재의 우울 증상 중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도록 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척도이다. 4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는 .87이다.

(4) 학교생활

학교생활의 척도는 청소년 지도육성회(1988)의 학교개입에 대한 도구를 이용하여 학교를 좋아하고 잘 지내는지, 학업에 대한 스

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친구, 선생님과 관계등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생활 척도의 신뢰계수 Cronbach's α 는 .63이다.

(5)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척도로서 Zimet를 중심으로 한 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사용하여 가족, 친구, 주요한 친지의 지지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의 신뢰계수는 가족의 경우 .87, 친구의 경우 .85, 주요한 친지의 경우 .91을 나타냈으며 하위영역간에 내적 부합도가 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용실태에 관한 기초빈도분석 이외에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휴대폰 중독에 대한 판별기준에 따라 휴대폰 사용집단을 비중독, 의존, 중독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일반적 사항과 관련하여 성, 고등학교, 학업성적을 종속변인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휴대폰 사용동기 및 사용실태와 관련된 변인들의 중독정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성을 검증하였으며 사회심리적 특성에 관한 각 검사 척도들-자존감, 우울, 충동성, 학교생활, 사회적 지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각각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가 유의미할 경우엔 Duncan 및 Turkey HSD 사후검증을 적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2. 휴대폰 중독과 사용집단의 중독 경향
3. 휴대폰 사용실태
4.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요인들
5. 성별, 학교성적, 이용시간과 사회심리적 특성

IV.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43.75%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이 56.25%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다소 많았다. 한편, 응답자의 58.69%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41.30%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학교성적을 보면 16등에서 30등 사이, 즉 보통 수준의 학업성적을 가진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2.99%로 가장 많았고, 5등 이하로 매우 성적이 좋은 학생은 5.16%, 6등에서 15등 사이로 성적이 좋은 편인 학생은 18.21%, 30등 이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23.64%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학급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가정 생활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상', 49.73%가 '중상', 38.32%가 '중하', 2.98%가 '하'로 보고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가정 생활수준을 중간 정도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61	43.75
	여자	207	56.25
학교종류	인문계 고등학교	216	58.69
	실업계 고등학교	152	41.30
학급성적	매우 잘함 (1~5등)	19	5.16
	잘함 (6~15등)	67	18.21
	보통 (16~30등)	195	52.99
	못하는 편 (30등 이상)	87	23.64
가정의 생활수준	상	33	8.97
	중상	183	49.73
	중하	141	38.32
	하	11	2.98
계		368	100.00

2) 사회심리적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 주위 지지 측면을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클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자아존중감이 평균 35.27점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었다.

충동성(최소 23점에서 최대 92점)은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클수록 충동성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충동성 경향은 평균 54.72점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학교생활 적응은 평균 26.47점으로, 보통수준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울(최소 20점에서 최대 80점)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경향이 높는데, 본 연구응답자들은 평균 41.89점으로 청소년들의 우울 경향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지지(최소 12점부터 최대 84점)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주위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주위의 지지는 평균 31.49점으로 청소년들이 주위로부터 받는 지지가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특성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우울 경향은 낮고, 충동성은 강한 편이고, 학교생활은 보통수준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지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2>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자존감	368	35.27	4.59	17.00	48.00
충동성	368	54.72	7.89	26.00	78.00
학교생활	368	26.47	4.11	10.00	38.00
우울	368	41.89	9.78	20.00	77.00
주위지지	368	31.49	8.10	12.00	48.00

한편,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은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4276$,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는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r=-.384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4930,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의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r=.3810, p<.0001$)가 있었고, 학교생활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r=.3761,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들의 우울성향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사회심리적 특성끼리의 상관관계

변수	자존감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	주위지지
자존감	1.0000				
충동성	-.01586 0.0023	1.00000			
학교생활	0.4276 <.0001	-0.1953 0.0002	1.0000		
우울	-0.3847 <.0001	0.1865 0.0003	-0.4930 <.0001	1.0000	
주위지지	0.3810 <.0001	-0.2037 <.0001	0.3761 <.0001	-0.2776 <.000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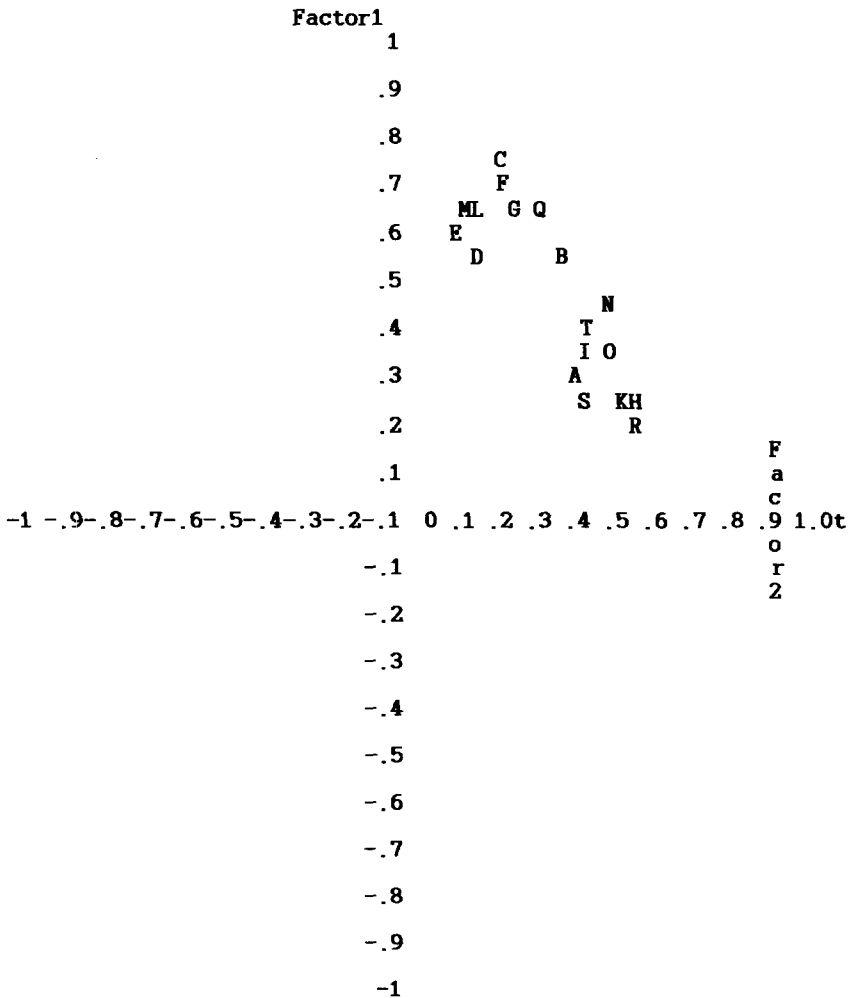
2. 휴대폰 중독과 사용집단의 중독경향

1) 휴대폰 중독

종속변수로서 휴대폰 중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작화 작업은 다음의 통계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설정되었다. 우선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구성된 항목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는 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휴대폰 중독 항목들의 상호관련성의 검증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의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듯 20개의 항목들은 모두 1상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림 1] 휴대폰 항목의 요인분석결과 위치도

A: 중독 1문항 B: 중독 2문항 C: 중독 3문항 D: 중독 4문항
 E: 중독 5문항 F: 중독 6문항 G: 중독 7문항 H: 중독 8문항
 I: 중독 9문항 J: 중독 10문항 K: 중독 11문항 L: 중독 12문항
 M: 중독 13문항 N: 중독 14문항 O: 중독 15문항 P: 중독 16문항
 Q: 중독 17문항 R: 중독 18문항 S: 중독 19문항 T: 중독 20문항

이는 항목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의 요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하나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휴대폰중독에 대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표 4>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 1 요인의 eigen 값은 9.69이며 전체 변량 중 86.55의 변량이 제 1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제 2, 제 3요인의 아이겐 값부터는 1.43, 0.96로서 현저히 줄어들었고 설명력도 미약하다. 따라서 추출된 제 1요인에 의한 공통성으로서 휴대폰 항목변수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표 4> 요인들에 대한 변량과 eigen 값

요인	설명된 변량%	eigen값
요인 1	86.55	9.69
요인 2	0.87	1.43
요인 3	0.09	0.96
요인 4	0.05	0.85
요인 5	0.03	0.76
요인 6	0.02	0.67
요인 7	0.01	0.63
⋮	⋮	⋮

아래의 <표 5>는 본 연구의 휴대폰 중독에 관한 문항을 도출된 제 1요인에 따라 상관관계의 크기를 기재한 것이다.

<표 5> 휴대폰 중독 항목의 요인적재값

휴대폰 중독 항목	요인1 적재값
원래 마음먹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휴대폰을 사용한 다.	0.5825
휴대폰 이용 때문에 집안일이나 공부를 미룬다.	0.7420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휴대폰을 이용할 때가 더 좋다.	0.7449
휴대폰에서 알게 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다.	0.6044
주위 사람들이 내 휴대폰 이용에 대해 불평한다.	0.5958
휴대폰을 이용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	0.7379
괴로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다.	0.7379
휴대폰이 없다면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0.6617
누군가 휴대폰 이용을 방해하면 짜증이 난다.	0.6845
일상생활에서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일단 휴대폰을 사 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0.7674
수업시간과 무관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한다.	0.6522
휴대폰 때문에 학교성적이나 공부의 지장을 받는다.	0.6565
어떤 사람이 휴대폰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숨 기거나 방어하게 된다.	0.6207
휴대폰을 하고 나서도 다시 휴대폰을 사용할 때를 기다 린다.	0.7435
휴대폰을 하지 않을 때에도 휴대폰이 울린 듯한 착각에 빠진다.	0.7280
휴대폰을 할 때 “조금만 더 해야지”하면서 계속 한다.	0.7766
휴대폰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0.7857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문자서비스부터 확인한다. (또는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0.6371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휴대폰 사용료 청구서를 받 아본 적이 있다.	0.5882
휴대폰이 없다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0.7072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변수의 측정은 위 <표 5>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중독 요인(factor)점수를 통하여 산정한다. 중독 요인(factor)점수는 각 문항의 요인적재값의 휴대폰 중독 요인(factor)에 대한 상대적 기여를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 과정으로서 20개 문항의 요인 적재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량화된 항목의 점수들의 총합을 환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와 관련된 인터넷중독 연구들이 중독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문항들의 중독에 대한 측정 점수들을 합산하는 단순방식으로부터 나아가 각 항목들의 휴대폰중독에 대한 잠재적 예측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여과효과(filtering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2) 휴대폰 사용집단의 중독 경향

휴대폰 중독의 기준을 위의 중독 요인(factor) 점수에 기초하여 사분위수를 통한 분포를 기준으로 세 집단을 각각 비중독경향군, 의존경향군, 중독경향군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연구들은 Young의 분류방식을 따라 인터넷중독의 20문항의 5점 척도의 응답이 20점에서 50점이하인 경우 비중독, 50점이상 80점 이하인 경우 경한 중독, 80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중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사분위에 의한 측정방법은 휴대폰 중독의 의미가 대상이나 시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집단에게 융통성있는 적용이 가능하며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방성을 지닌다고 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의 상황은 65점 이상은 상위 10%를 구성하며 80점 이상의 경우 전체의 2-3%만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중독의 연구보다 점수의 분포가 하향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서구의 중독에 대한 일률적인 점수의 적용과 다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청소년집단에게 나타나는 휴대폰 중독 현상을 분석할 필요성에서 이러한 사분위적 분류방식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대상자의 중독경향은 다음과 같다. 다시 요약하면 휴대폰 중독변수는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휴대폰 중독 요인(factor)에 의한 점수로서 산출하여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합산한 것이다.

<표 6> 휴대폰 중독 점수와 중독 요인(factor) 점수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치	최대치	사분위수
휴대폰 중독 점수	40.88	16.79	20.00	100.00	51.00이상(75%이상) 28.00~51.00미만 (25~75%미만) 28.00미만 (25%미만)
휴대폰 중독 요인 점수	27.88	11.61	13.76	68.81	35.06이상 (75%이상) 19.08~35.06미만 (25~75%미만) 19.08미만 (25%미만)

<표 6>에 따르면 응답자의 휴대폰 중독의 평균점수는 40.88 (표준편차=16.79)이며 20점부터 100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이를 사분위수로 분류시 28, 51점이 기준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의 측정변수로서 선택한 휴대폰 중독 요인(factor)의 점수의 평균은 27.88이며(표준편차=11.61) 최소치 13.76에서 최대치 68.81까지가 범위이며 사분위수의 기준은 19.08, 35.06점이 기준이 된다.

한편 휴대폰 중독점수와 중독 요인(factor)점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신뢰계수가 0.9996 ($p < 0.0001$)으로서 매우 높아 본 연구의 휴대폰 중독 요인(factor)점수는 중독점수에 의한 측정내용과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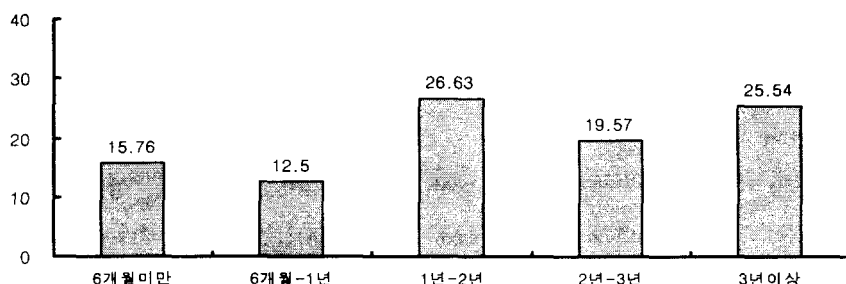
3. 휴대폰 사용실태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시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사용 요금, 요금 지불자, 상담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기간에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22.73개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개월 미만 사용자가 15.76%, 6개월이상 1년미만 사용자가 12.5%, 1년이상 2년 미만 사용자가 26.63%, 2년이상 3년미만 사용자가 19.57%, 3년이상 사용자가 25.5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고등학생임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초·중학교 학생 때부터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7> 사용기간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사용기간	364	22.73	1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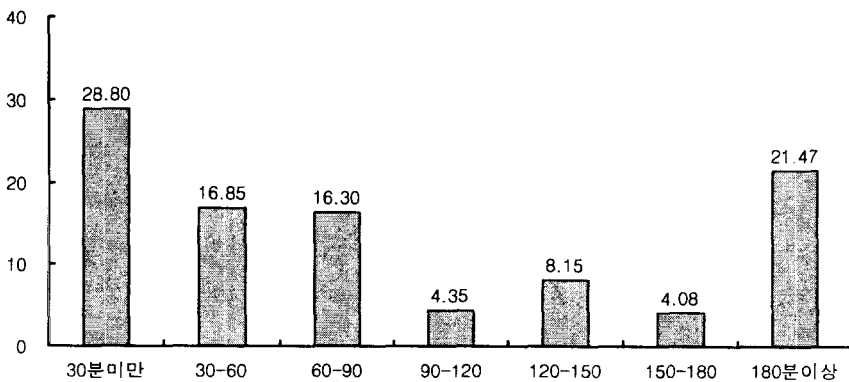
[그림 2] 사용 기간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시간을 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하루동안 이용하는 휴대폰 이용시간이 평균

171.29분으로 대략 2시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33.7%를 차지하였고, 하루에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청소년도 전체 응답자의 21.47%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시간이 매우 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8> 1일 휴대폰 이용시간

사례	평균	표준 편차	최소치	최대치	사분위수
347	171.29	297.08	0	1440	150분 이상 (75%이상) 30분~150분 미만 (25~75%미만) 30분 미만 (25%미만)



[그림 3] 이용 시간

<표 9>의 결과는 사용시간의 비중에 따라 살펴볼 때 청소년들은 문자 메시지(66.5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화(29.89%)의 목적이, 무선 인터넷(2.17%), 기타(1.36%)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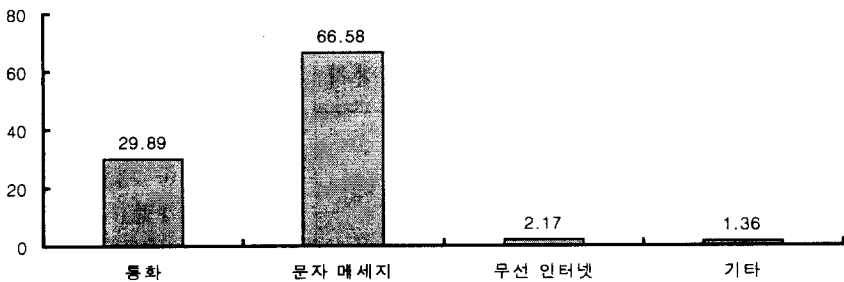
<표 9> 휴대폰의 용도별 사용시간 비중

	빈도	백분율(%)
통화	110	29.89
문자메세지	245	66.58
무선인터넷	8	2.17
기타	5	1.3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용도

이렇게 문자 메세지와 통화를 주로 하는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76.71%가 친구들과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반면 18.36%만이 가족간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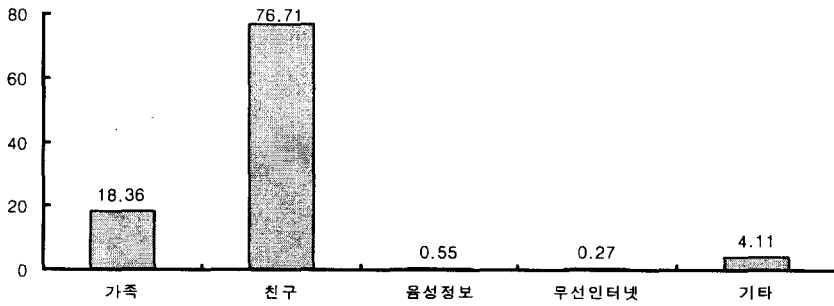
<표 10> 휴대폰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빈도	백분율(%)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간의 연락	67	18.36
친구들과 연락	280	76.71
음성정보서비스	2	0.55
무선 인터넷 정보이용	1	0.27
기타	15	4.1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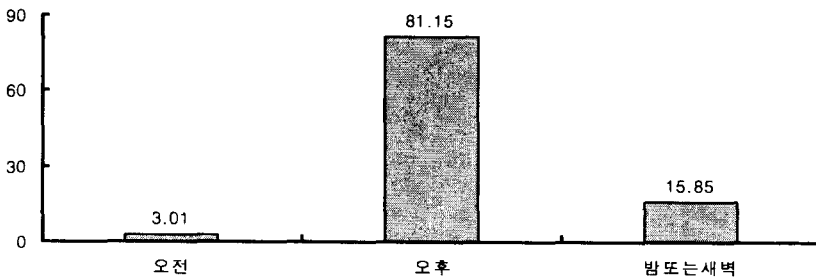


[그림 5] 이용 목적

휴대폰의 청소년 이용시간대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나타
나듯 청소년들은 주로 오후시간(81.15%)에 휴대폰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이 밤 또는 새벽이었고, 오전에 휴대폰 사용하는 청소년
의 비율은 다소 적은 편이었다.

<표 11> 휴대폰 이용시간대

	빈도	백분율(%)
오전	11	3.01
오후	297	81.15
밤 또는 새벽	58	1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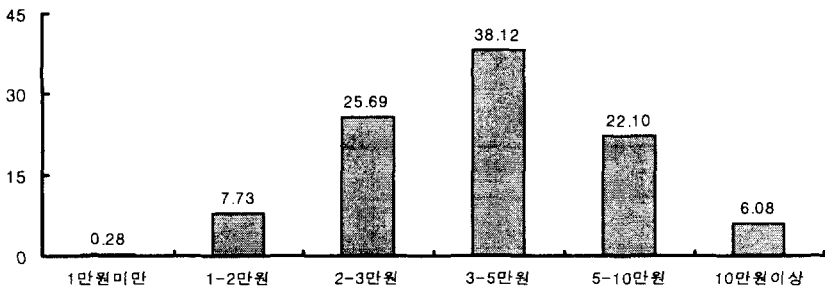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6] 이용 시간대

휴대폰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볼 때, 월 약 4만 4천원이라는 다소 많은 액수의 휴대폰 사용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월 3~5만원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38.12%로 가장 많았고, 2~3만원(25.69%), 5~10만원(22.10%), 1~2만원(7.73%)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월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는 청소년도 6.08%를 보였다<표 12 참조>.

<표 12> 사용요금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요금	362	44.03	7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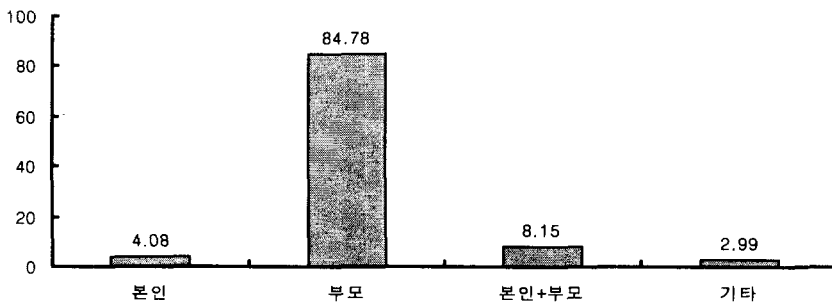


[그림 7] 사용 요금

요금 지불자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84.78%가 부모에 의해 휴대폰 사용요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과 부모가 함께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8.1%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서의 책임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었다.

<표 13> 요금지불자

	빈도	백분율(%)
본인	15	4.08
부모	312	84.78
본인+부모	30	8.15
기타	11	2.9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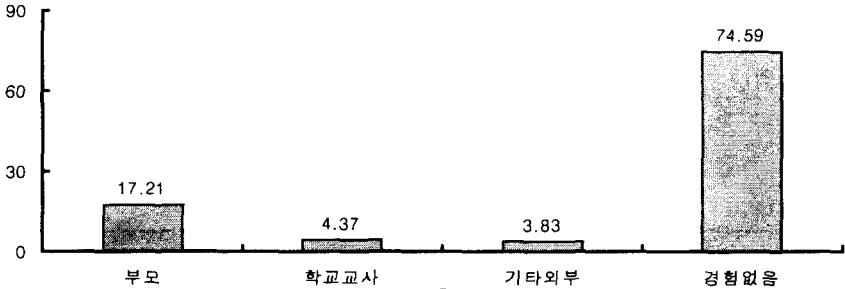
[그림 8] 요금 지불자

본 연구대상자들의 휴대폰과 관련하여 상담경험 유무와 상담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4.59%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응답자의 17.21%는 부모와, 4.37%는 학교교사와, 3.83%는 외부 자원과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14 참조>.

<표 14> 휴대폰 관련 상담 유무

	빈도	백분율(%)
부모	63	17.21
학교교사	16	4.37
외부	14	3.83
없다	273	74.59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9] 상담 유무

4.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휴대폰 사용실태,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중독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중독성향은 비중독 집단, 의존집단, 중독집단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에 휴대폰 사용 의존청소년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중독과 중독성향이 있는 청소년은 각 93명과 92명으로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비중독자는 전체 응답자의 25.27%에 불과한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중독 현황이 심각함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휴대폰 중독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교 유형, 성적 및 가정의 생활수준 정도를 살펴 보았고, 일반적 특성과 휴대폰 사용중독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성별과 휴대폰 중독성향간의 관계는 교차분석의

결과 4.4310의 카이자승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표 15 참조>.

<표 15> 성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남	46 (12.50)	83 (22.55)	32 (8.70)	4.4310
녀	47 (12.77)	100 (27.17)	60 (16.30)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 < .05$

** $p < .01$

*** $p < .001$

고등학교 유형과 휴대폰 중독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차분석의 카이자승의 값이 10.3859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 비중독 경향을 보이는 고등학생은 77명(20.92%)이며, 중독 경향을 보이는 고등학생은 57명(15.49%)를 나타냈다. 한편,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가운데 35명(9.51%)가 중독 성향을 보였으며, 16명(4.35%)의 청소년은 비중독의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휴대폰 활용에서 비중독되는 경향이 있고,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다<표 16 참조>.

<표 16> 고등학교 종류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일반고	77 (20.92)	125 (33.97)	57 (15.49)	10.3859**
실업고	16 (4.35)	58 (15.76)	35 (9.51)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휴대폰 중독성향은 <표 14>에서 제시하고 있듯, 교차분석의 결과 카이자승의 값이 17.4494를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매우 성적이 좋은 청소년 가운데 11명(2.99%)이 중독성향을 더 보였으며, 학업성적이 저조한 청소년 중 27명(7.34%)은 중독의 경향을, 20명(5.4%)의 경우 비중독의 경향을 보였다. 성적이 잘하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 가운데 21명(5.71%)은 중독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11명(2.99%)의 비중독의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 보다 많았다. 보통의 성적을 가진 청소년 가운데 48명(13.04%)은 중독 성향을 보였고, 43명(11.6%)은 비중독 성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매우 성적이 좋은 청소년과 성적이 나쁜 청소년은 휴대폰 사용에 중독된 경향이 있고, 성적인 좋은 편인 청소년과 성적이 보통수준의 청소년들은 비중독 경향이 있었다.

<표 17> 성적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매우 잘함	4 (1.09)	4 (1.09)	11 (2.99)	17.4494**
잘함	21 (5.71)	35 (9.51)	11 (2.99)	
보통	48 (13.04)	104 (28.26)	43 (11.68)	
못하는 편	20 (5.43)	40 (10.87)	27 (7.34)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가정생활수준과 휴대폰 사용 중독 성향간의 관계는 <표 18>의 결과에서 보이듯, 카이자승의 값이 10.5891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 생활수준이 중상인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중독 성향을 보였다.

<표 18> 생활수준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상	10 (2.72)	9 (2.45)	14 (3.80)	10.5891
중상	48 (13.04)	96 (26.09)	39 (10.60)	
중하	32 (8.70)	74 (20.11)	35 (9.51)	
하	3 (0.82)	4 (1.09)	4 (1.09)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청소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과 성적수준만이 청소년 휴대폰 사용 중독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성적이 아주 좋은 청소년과 성적이 아주 나쁜 학생에게서 중독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휴대폰 사용동기와 휴대폰 중독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동기와 중독성향과의 관계를 <표 19>에서 분석하였다.

사용동기는 하위변수로서 스트레스 해소, 익명성, 호기심, 정보용이성, 새로운 정체성, 시간손실, 또래 소속감, 외로움 해소, 상상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하위변수와 휴대폰 사용중독 성향간의 관계를 보면, 휴대폰 사용 중독집단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 익명성, 호기심, 정보용이성, 새로운 정체성, 시간손실, 또래 소속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스트레스 해소와 중독 성향간의 관계는 매우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F=30.21$, $p<.001$).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 순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발생됨이 드러났다. 즉 중독집단이 가장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익명성과 중독간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8.22$, $p<.01$).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익명성으로 인한 동기유발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호기심과 중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14.44$, $p<.001$). 중독, 의존, 비중독 집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독 집단에서 가장 높은 호기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정보용이성과 중독 성향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7.56$, $p<.01$).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정보를 쉽게 구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새로운 정체성과 중독간에 높은 관계를 보였다($F=17.51$, $p<.001$).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시간손실과 중독 성향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보였다($F=33.26$, $p<.001$). 중독, 의존, 비중독 집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독 집단에서 가장 많게 아무 생각없이 시간을 보냄을 선호하여 높은 시간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또래 소속감과 중독 성향간에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8.52$, $p<.001$).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은 또래 소속감을 나타냈고,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외로움 해소와 중독 성향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보였다($F=21.00$, $p<.001$).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더 많이 여겼고,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외로움 해소의 경향을 높게 보였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홉째, 상상력과 중독 성향간에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8.68$, $p<.001$).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고 더 많이 인식하였고,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였다. 중독집단과 의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집단간 차이 유형별로, 다시 정리 해보면 우선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 순으로 나타난 동기유형들은 스트레스, 호기심, 시간손실이다. 즉 중독, 의존, 비중독집단 순서로, 스트레스 해소가 높고, 호기심이 크고, 시간손실도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중독집단과 비중독 집단간에 차이가 있고, 의존집단과 비중독집단에 차이가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의존집단이 비중독집단 보다 정보용이성에 효과적이고 중독집단이 비중독보다 정보용이성과 익명성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비중독집단 보다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의존집단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또래간에 소속감 형성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휴대폰 사용에 중독된 집단군이 비중독군 보다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상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휴대폰에 중독된 집단이 비중독된 집단보다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문제시하지 않고 청소년 자신도 모르게 중독화 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각각의 동기유형들에 대하여, 휴대폰이 아닌 다른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19> 사용동기에 따른 중독성향

변수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사후검증
스트레스 해소	34.45	17.22	30.21***	중독> 의존> 비중독 (2.60) (2.25) (1.75)
익명성	9.16	4.58	8.22**	중독> 비중독 (2.32) (1.88) 의존> 비중독 (2.12) (1.88)
호기심	15.31	7.65	14.44***	중독> 의존> 비중독 (2.28) (2.03) (1.70)
정보용이성	10.03	5.01	7.56**	의존> 비중독 (2.44) (2.05) 중독> 비중독 (2.41) (2.05)
새로운 정체성	15.69	7.84	17.51***	중독> 비중독 (2.11) (1.56) 의존> 비중독 (1.99) (1.56)
시간 손실	40.44	20.22	33.26***	중독> 의존> 비중독 (2.78) (2.35) (1.84)
또래 소속감	24.58	12.29	18.52***	중독> 비중독 (2.66) (1.95) 의존> 비중독 (2.44) (1.95)
외로움 해소	29.46	14.73	21.00***	중독> 비중독 (3.00) (2.23) 의존> 비중독 (2.78) (2.23)
상상력	20.21	10.10	18.68***	중독> 비중독 (2.54) (1.90) 의존> 비중독 (2.32) (1.90)

* p < .05

** p < .01

*** p < .001

3) 휴대폰 사용실태와 휴대폰 중독

휴대폰 사용실태에서 사용기간, 1일 이용시간, 지불요금, 이용목적, 상담 유무 등과 휴대폰 중독성향을 살펴보았다.

휴대폰 사용 중독성향에 따라 휴대폰 사용기간($F=6.58$, $p<.01$)과 1일 이용시간($F=10.91$, $p<.001$)은 통계적으로 휴대폰 중독성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지불요금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0 참조>. 휴대폰 사용기간에 있어서 휴대폰 중독집단은 27.34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중독집단은 18.39개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 보다 휴대폰 사용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중독집단은 281.86분, 의존집단은 166.36분, 비중독집단은 77.61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독집단이 의존집단이나 비중독집단에 비해 하루동안 휴대폰 사용시간이 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0> 사용기간 및 이용에 따른 중독성향

변수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사후검증
사용기간	3649.59	1824.79	6.58**	중독> 비중독 (27.34) (18.39)
이용시간	1820931.38	910465.69	10.91***	중독> 의존> 비중독 (281.86) (166.36) (77.61)
지불요금	25355.00	12677.50	2.46	

* $p<.05$

** $p<.01$

*** $p<.001$

<표 21>에서 제시하고 있듯,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목적과 휴대폰 중독성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가족과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중독성향이 나타난 것에 반해 친구와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에 중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1> 이용목적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가족	29 (7.88)	30 (8.15)	11 (2.99)	18.2770
친구	60 (16.30)	145 (39.40)	75 (20.38)	
음성정보	0 (0.00)	2 (0.54)	0 (0.00)	
인터넷	0 (0.00)	0 (0.00)	1 (0.27)	
기타	4 (1.09)	6 (1.63)	5 (1.36)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 < .05$

** $p < .01$

*** $p < .001$

상담을 받은 여부 및 상담대상자와 중독성향간에는 <표 22>의 결과 분석에서 보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74.59%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상담 및 지도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상담유무별 중독성향

	비중독	의존	중독	χ^2
부모로부터	9 (2.45)	33 (8.97)	21 (5.71)	13.7965
학교교사	2 (0.54)	8 (2.17)	6 (1.63)	
다른외부	1 (0.27)	7 (1.90)	6 (1.63)	
없다	81 (22.01)	135 (36.68)	59 (16.03)	
계	93 (25.27)	183 (49.73)	92 (25.00)	368 (100.00)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심리적 특성과 휴대폰 중독

휴대폰 중독성향에 따라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 주위지지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 하위변수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첫째, 자아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07$).

둘째,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F=23.19$, $p < .001$). 즉, 높은 충동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휴대폰 중독의 성향을 나타냈다. 더 상세하게 사후 검증을 중독의 집단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독집단의 충동성의 평균점수는 57.82로써 의존집단의 55.30, 비중독집단의 50.53의 충동성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53$, $p<.05$). 휴대폰 중독 의존집단이 학교생활에서 중독집단보다 더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집단의 학교생활 평균점수는 29.94로써 중독집단의 4.53의 학교생활 평균점수보다 높았다.

넷째, 우울과 휴대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F=17.70$, $p<.001$). 중독집단의 우울의 평균점수는 46.56점으로써 의존집단의 38.59의 우울점수보다 높으며, 또한 비중독의 우울점수인 41.2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위지지는 중독성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0.65$).

따라서 사회심리적 특성에서 자존감, 주위지지는 중독성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회심리적 특성들의 사후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충동성은 중독집단, 의존집단, 비중독집단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교생활은 의존집단이 중독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우울성향 수준은 중독집단이 의존집단이나 비중독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표 23>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중독성향

변수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사후검증
자존감	86.74	43.37	2.07	
충동성	2576.02	1288.01	23.19***	중독> 의존> 비중독 (57.82) (55.30) (50.53)
학교생활	150.28	75.14	4.53*	의존> 중독 (29.94) (25.39)
우울	3105.31	1552.65	17.70***	중독> 의존 (46.56) (38.59) 중독> 비중독 (46.56) (41.21)
주위지지	86.18	43.09	0.65	

* $p<.05$

** $p<.01$

*** $p<.001$

5. 성별, 학교성적, 이용시간과 사회심리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특성과 성, 학교성적, 이용시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휴대폰 중독에 관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경향, 주위의 지지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2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성향과 주위의 지지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있었다. 우울 성향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우울 성향이 높지 않았지만, 사후검증 결과 우울에 대한 평균점수가 여학생은 42.84점이고 남학생은 40.66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우울 성향이 강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우울성향과 마찬가지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주위의 지지를 적게 받고 있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주위지지의 평균점수가 29.93이고 여학생의 주위지지의 평균점수가 32.7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위의 지지를 더욱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성별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사후검증
자존감	5.43	5.43	0.26	
충동성	9.12	9.12	0.15	
학교생활	8.65	8.65	0.51	
우울	430.71	430.71	4.54*	여학생 > 남학생 (42.84) (40.66)
주위지지	696.00	696.00	10.88**	여학생 > 남학생 (32.71) (29.93)

* $p < .05$

** $p < .01$

*** $p < .001$

<표 25>는 학교성적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 우울 성향은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지지 정도는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따라 사회심리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이 좋은 집단이 보통인 집단이나 나쁜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좋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보통인 집단이나 나쁜 집단보다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였고 학교성적이 보통인 집단이 학교성적인 나쁜 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반면 학교성적이 나쁜 집단과 학교성적이 보통인 집단이 학교성적이 좋은 집단보다 충동성향이 강하였다. 한편 학교성적이 매우 좋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좋은 집단이나 보통인 집단 그리고 나쁜 집단 보다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이 나쁜집단이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과 보통인 집단 보다 우울성향이 높았다.

<표 25> 학교성적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사후검증
자존감	601.82	200.60	10.24***	B>C, B>D
충동성	909.81	303.27	5.03**	D>B, C>B
학교생활	811.33	270.44	18.24***	B>C, B>D, C>D
우울	2246.00	748.66	8.29***	A>B, A>C, A>D D>C, D>B
주위지지	23828.80	95.064	1.45*	

A:매우잘함, B:잘함, C:보통, D:못함

* p<.05

** p<.01

*** p<.001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은 1일 평균 171.29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휴대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도 21.4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음에서는 휴대폰 이용시간에 따라 사회심리적 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표26>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충동성, 학교생활, 주위의 지지는 청소년의 휴대폰 이용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의 경우에는 1일 150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청소년이 1일 30분 이상 150분 미만 휴대폰을 사용한 청소년보다 우울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장시간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26> 이용시간과 사회심리적 특성

변수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사후검증
자존감	35.62	17.81	0.84	
충동성	322.72	161.36	2.61	
학교생활	27.40	13.70	0.81	
우울	794.89	397.44	4.23*	A>B (44.51) (40.65)
주위지지	258.62	129.31	1.98	

A: 1일 이용시간이 150분 이상, B: 30분이상-150미만

* $p < .05$

** $p < .01$

*** $p < .001$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우울성향이 더 높고 주위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좋은 집단이 성적이 보통인 집단이나 나쁜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이 나쁜 집단과 보통인 집단이 성적이 좋은 집단보다 충동성이 강하였고 성적이 아주 좋은 집단이거나 아주 나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과 학업성적에 따라 사회심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매체가 청소년집단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서 활용되며 휴대폰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정보화의 역기능적 결과로서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개념적 구성을 시도하며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졌다. 사이버세계에서의 현실에 대한 과급효과들이 계속 논의중이며 사이버 중독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휴대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많은 제한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적 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성장단계에 놓인 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휴대폰 정보매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시사적 함의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1. 연구결과 요약

사이버 중독과 관련한 문헌연구 및 서울의 일반계와 실업계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상정한 휴대폰 중독의 개념적 정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사용자의 생활양식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휴대폰 중독 청소년 집단이란 절대적이거나 신체적으로 병리적인 중독상태에 있는 청소년집단을 의미한다고 보기 보다는 휴대폰에 대한 의존행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 휴대폰 사용에의 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청소년집단을 말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의 측정은 통계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중독요인(factor) 점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중독경향성은 사분위수를 통한 분포를 기준으로 비중독집단, 의존집단, 중독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휴대폰 중독에 대한 구성항목들의 차별적 잠재적 예측정도에 따른 여과(filtering)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휴대폰 중독 의미의 적용을 시대나 집단에 따른 상이성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청소년 대상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다.

셋째, 휴대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정보매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하루에 30분에서 150분을 사용하였고 일일 180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도 21.47%에 달한다. 휴대폰 사용 요금으로서 월평균 3~5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76.71%가 친구들과의 연락을 위해서였고 18.36%가 가족간의 연락을 위해서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통화(29.89%)보다는 문자 메시지(66.58%) 등의 휴대폰 기능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넷째, 휴대폰 사용과 중독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중독경향을 보인 청소년들은 휴대폰 사용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휴대폰 사용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익명성, 호기심 증가, 정보용이성, 새로운 정체성 확립, 또래와의 소속감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비중독 청소년들에 비해 일일 휴대폰 사용시간이 길고 사용해 왔던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휴대폰 중독집단의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우울은 중독경향에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성의 중독에 대한 높은 영향력은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의 부족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는 휴대폰 중독이 분류되지 않은 충동조절장애의 하나로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우울의 특성도 휴대폰 중독집단의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우울과 이용시간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우울과 중독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따라 (Young, 1996) 휴대폰 중독과 우울간의 명백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사용의 익명성, 나만의 세계로의 은닉성등과 관련하여 우울적 특성이 휴대폰 사용을 통한 긍정적 보상을 수여받도록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다. 조사결과, 학교생활은 중독예측에 매우 중요하며 고등학교 종류, 학교성적에 따라 중독경향에 차이를 보였다. 나아가 학교생활, 학업성적, 주위의 지지등의 요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으며 학업성적은 충동성이나 우울의 심리적 특성들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지지가 적을수록 자존감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존의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휴대폰 중독의 개입적 전략에서도 청소년의 환경적 요소를 감안한 삶의 맥락적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개입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의 물결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건전한 정보문화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정보통신 담당부처등을 중심으로 휴대폰과 아울러 다른 정보매체들과의

연계에서 정보기기들의 사용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휴대폰 정보매체 사용에 관하여 청소년들 뿐 아니라 부모들이 어떻게 인지하며 대처하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개입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과 파생되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등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적 개입방안이나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휴대폰 중독에 대한 문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 보호적 차원이 조명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은 수많은 정보와 다양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물론,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실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지식의 체제성 측면에서 정돈 및 정립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라는 공공성과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라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통신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화의 과정에 순응하면서도 통신세계의 변화를 선두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실의 복잡성 및 잠재적 위험성에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청소년 보호차원의 통신서비스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일 예로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이행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가입, 명의도용 및 명의변경,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 사용의 역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중독의 경향성과 중독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휴대폰 사용동기에 대한 정보화기능의 역할에서 부분적으로 논의하였지만 미래지향적 정보화사회에 부합하는 휴대폰 사용의 긍정적 기능을 꾀하면서도 현상에서의 역기능을 상쇄하도록 유도하는 창의적인 정보매체 활용의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활동과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래의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수민(1988). 사회조직망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순(2000). 정보사회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인터넷문화: 청소년참여와 일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옥순, 홍혜영(1998). 정보사회와 청소년 I -통신중독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김청송(2001). 성격특질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청소년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개발원.
- 도상금·박현주(2000). 충동통제장애. 학지사.
- 박성연, 도현심(1999). 아동발달. 동문사.
- 성주은(1999). PC통신 중독자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경(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소남(1996). PC통신 이용자의 통신중독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7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

- 협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성경(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한대학교(1998). 고객만족을 위한 PCS경영전략.
-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수 외(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학, 제 40권, 4호, 616-626.
- 이명숙(1998). 성격요인과 자기효능감이 알콜리즘치료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칭찬(2001). 한국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효정(2000). 사이버 의존 집단과 비의존 집단간의 심리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도현(1984).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 양동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중독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pp.91-111.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실태 및 사회학적 의미고찰.
- 한상철(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발달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진구(2001). 청소년 정보격차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Coopersmith, S.(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Dumont, M. & Provost. M(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 No. 3.
- Dubow, E. F., & Luster, T.(1990). Adjustment of children born to teenage mother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93-404.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Psydoc@PsyCom.Net.
- Griffiths M.D.(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Hartos, J. L., Eitel, P., Haynie, D. L., & Simons-Morton, B. G.(2000). Can I take the car? Relations among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problem-driving practi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3, 352-367.
- Janis. I. L. (1954). Personality Correlates of Susceptibility to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22, pp. 504-518.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M., &

- Turbin, M.S.(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923-933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e, R. D. & Salby, R. G. (1981).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N. Y.: Wiley.
- Rodgers, Joann. E. (1994). "Addiction: a whole new view," *Psychology Today*. Vol. 27.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3, 259-280.
-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World Wide Web.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 3, 328-349.
- Whitaker, D. J. & Miller, K. S.(2000). Parent-adolescent discussions about sex and condoms: Impact on peer influences of sexual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51-273.
- Young, K.S.(1994). "What is internet addiction?" Center for

On-line Addiction.

_____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roceedings of the 10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6 Aug 16, Toronto, Canada.

_____ (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roceedings of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7 Aug. 15, Chicago, IL.

Young. K. S. & Rod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1), pp.25-28.